

兒童의 恐怖對象에 關한 調查研究
- 7~12세의 國民學校 兒童를 中心으로 -

A study of the Feared objects of Primary
School Children.

李 景 姬**
Lee, Kyoung Hee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is a study of the feared objects of children between 7 and 12 years of age. The data consisted of the replies to a questionnaire by 802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Chun Chon City and Chunsung and Wonsung Counties plus.

The questionnaire was divided into parts: 6 questions were designed to be answered by the children and 22 by their mothers. The children were asked about their feared objects, feared places, and feared colors, whereas their mothers about their own feared objects plus the backgrounds of their children's fear-objects. Frequency, percentage, and X^2 -test were applied to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Ghost (Kuishin), Devil (Toggaebi), and animals turned out to be the main feared objects of children.
2. Children's feared objects were same regardless of differentiating ages and regional backgrounds. Sex was the only factor which caused any differences. Girls were more sensitive to the animals as their feared objects.
3. Red and black proved to be the most frequently feared colors for all children.
4. Children's feared objects were influenced by the feared objects of their parents, grand parents and sisters and brothers.
5. Children's feared objects were related to the fairy tales and stories they have been told by their mothers.

o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I. 序 論

1) 研究目的

J.B.Watson에 의하면 人間の 基本的인 세가지 情緒는 恐怖·忿怒·愛情이며 出生後 新生아에게 特殊한 刺戟을 주면 恐怖·忿怒·愛情의 세가지 뚜렷한 情緒를 나타낸다¹⁾고 한다. 발달과정에 있어서 아동의 情緒的 經驗은 그 아동의 정신적 健康에 심오한 影響을 주게 되는데 現代의 兒童은 대단히 감각적인 신문기사나 빠른 정보, 흥분시키는 영화나 恐怖感을 주는 T.V프로그램등의 형태로 이미 많은 代理恐怖刺戟을 대하게 된다. 特히 生存競爭에서 오는 不安感 以外에 現代文明의 發達로 인한 核武器 核戰爭 放射能 環境汚染 등에 대한 恐怖感도 느끼며 생활하게 된다.

一般的으로 恐怖感은 우리들 모두에게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間에 存在하고 있으므로 恐怖感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나 그의 生을 민활하게 流通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恐怖 情緒는 불가피한 情緒이며 원시시대에는 人間이 生存하기 위해서 필 수적으로 갖는 情緒였다. 그러나 지나친 恐怖感은 人間으로 하여금 意志薄弱 乃至는 甚하면 精神分裂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 特히 恐怖情緒는 아동의 自發性과 自由를 손 사시킬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의 發達過程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어떤 要因들이 아동의 恐怖情緒에 影響을 미치는가에 對한 研究는 重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本 研究의 目的은 7~12세 사이의 國民學校 아동을 對象으로 하여 아동의 恐怖對象에 關한 年令別·地域別·性別 特徵을 調查하고 아동의 恐怖對象과 家族의 恐怖對象과의 關係를 考察하고 가능하다면 아동에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 불필요한 恐怖刺戟要因들을 제거하여 아동의 건전한 精神的·身體的 發達을 도모하고자 함이 本 研究의 基本的 立場 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研究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年令別·地域別·性別에 따른 아동의 恐怖對象의 差異를 파악하고

연구문제 (II) 家族構成員中 父母 祖父母 兄弟姉妹의 恐怖對象을 調查하여 家族의 恐怖對象은 아동의 恐怖對象과 關係가 있는가를 考察한다.

연구문제 (III) 부모가 일상생활이나 옛날 이야기 또는 동화를 통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던 공포대상은 아동의 현재공포 대상에 影響을 주며 關係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註1) John B. Watson 'Watson on Fear' (1919) in wayne Dennis(ed) Historical Reading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Appleton Centry crafts 1972 를 이용한 朱貞-「兒童發達學」 敎文社. 1985. P. 238

연구문제 (IV) 아동의 恐怖對象에 영향을 미치는 背景的 要因에 따른 差異點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특히 家屋構造에 따른 아동의 공포대상에는 差異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2)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① 조사대상 지역을 춘천시, 원성군, 춘성군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 제한이 있다.

② 아동의 공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 家族構成員과의 관계외에 教師나 친구 등 다른 요인을 다루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③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의 공포정서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는 이론적 고찰 및 예비조사와 실제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연구능력의 한계와 국내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용어선택과 해석으로 인하여 연구결과가 사실의 범위와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恐怖의 정의

恐怖情緒는 個體가 環境에서 오는 刺戟에 壓倒되어 對抗하지 못하고 위기를 예감했을 때 일어나는 感情狀態이다. 즉 個體가 변화된 상황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情緒로서 恐怖의 共通的 特徵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일어난다는 데 있다.

아동이 지니고 있는 恐怖의 대부분은 發達過程에 有害한 影響을 미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정도 아동의 安全에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지니고 있는 恐怖의 대부분은 正當한 근거가 없지만 그러니 그것들은 慎重하게 行動하는 動機를 附與하는 것이다. 즉 恐怖情緒는 아동으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위험을 피하게 하며 일어날 수 있는 危險에 對하여 準備態勢를 취하게 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恐怖는 아동의 發達에 影響을 미치므로 恐怖를 극복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恐怖의 對象을 除去하여 아동의 生活을 保護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恐怖情緒의 分類

① 本能的인 恐怖 (Instinctive fears)

Gesell에 의하면 動物, 죽음, 자리바뀔, 소음, 예기치 않은 행동, 떨어짐 (fall) 등에 대해서 人間은 本能的으로 恐怖反應을 일으키며 특히 어머니로부터 分離됐을 때 恐怖反應을 나타낸다고 한다.²⁾ Gidseg에 의하면 警鍾 (Siren)이나 진공청소기 (Vacuum

註 2) Gesell. A : Child Development Harper & Brothers Publishes, 1965, P. 303.

Cleanr)의 소리, 개 짖는 소리에 대해서 本能的으로 恐怖反應을 나타내며³⁾ 특히 生後 7~8個月에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 恐怖를 나타낸다⁴⁾고 한다. Valentine에 의하면 사람의 恐怖中에는 쉽게 야기되는 것과 어렵게 야기되는 공포가 있는데 쉽게 惹起되는 恐怖는 거의 自動的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先天的인 恐怖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⁵⁾

② 後天的으로 習得되는 恐怖 (Fears that learned)

아동의 공포정서는 그 對象이나 反應이 年齡에 따라 變化하는데 그것은 아동의 공포반응이 成熟이나 學習을 바탕으로 하여 形成됨을 알 수 있다. 아동은 성숙함에 따라 知覺이 發達하여 더욱 많은 刺戟을 인식하게 되는데 공포는 아동이 그 場面の 可能的 危險을 충분히 認識하면서도 變化하는 場面을 완전히 支配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恐怖情緒가 學習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⁶⁾는 것은 고통스런 經驗이나 놀란 經驗이 어린이의 恐怖對象이 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공포는⁷⁾ 불쾌한 經驗(소아과나 치과에 갔던 경험등), 귀신·강도·해골·도깨비·영화나 T.V. 옛날 이야기등을 통해서도 습득되어 진다. 공포정서가 습득되는 과정은 間接적인 段階나 中間段階를 거쳐서 이루어 진다. 한번 어린이가 놀라게 되면 아동의 공포는 다른 대상이나 조건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어린이가 공포감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불안상태에 있을때 쉽게 확산될 수 있다.⁸⁾ 공포의 조건과정은 어린이의 놀람과 관련된 환경이나 대상물을 提供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렇게 습득되어진 恐怖는 그 恐怖가 習得된 條件을 解消하거나 社會的 模倣에 의한 方法으로 恐怖를 除去하거나 恐怖對象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持續되는 恐怖 (Fears that persist)

많은 種類의 恐怖가 감소되거나 사라지지만 兒童期에 큰 比重을 차지하였던 情緒는 成年期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殘存한다고 한다. Jersild와 Holmes(1935)의⁹⁾ 研究에 의하면 아동기의 恐怖는 成年期에 40% 이상이 남아 있다고 한다. 대부분 아동기의 恐怖는 後에까지 移轉되는데 成年期까지 持續되는 恐怖의 27%는 아동기때의 가장 격렬한 공포로서 회상되고 28%가 가장 최초로 회상되었던 恐怖로서 持續된다고 한다.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공포로서는 動物, 疾病, 火災, 溺死에 대한 身體的 危險 및 超自然的

註3) Gidseg, L.: *The American babybook* Book inc, 1955 P. 483

4) Hebb, D.O.: *On the motive of fear* Psychological Review 53. 1941. PP. 259-76

5) Valentine: *The innate bases of fea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37, 1930. PP. 394-420.

6)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McGraw-Hill international Book Co, 1981. PP. 197-201.

7) Waston, J.B. and R, Rayner: *Conditioned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 1920. PP. 1-14.

8) Hurlock E.B., OP. Cit., P. 15.

9) Jersild, A.T. and F.B. Holmes: *Childrens fears*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No. 20.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5, PP. 31)-330.

(Supper natural)인 것과 관련된 위험, 어두움, 혼자있는것 등에 대한 恐怖라고 한다. 動物에 대한 恐怖는¹⁰⁾ (Miller et al., 1972) 국민학교 高學年으로 올라 갈수록 점점 減少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자주 빈번하게 느꼈던 動物에 대한 恐怖는 成年期까지 殘存한다고 한다. 身體的인 부상과 정신적인 압박(stress) 이 두가지 중요한 영역은 兒童期부터 成人에 이르기까지 一生을 통해서 持積되는 恐怖로 나타났다.¹¹⁾

3) 恐怖情緒에 影響을 주는 諸要因

① 年 齡(Age)

兒童의 恐怖情緒는 年齡에 따라서 그 對象이나 反應에 變化를 가져온다. 新生兒는 갑자기 意志對象을 상실하거나 큰소리를 듣거나 몸이 移轉되거나 잠들려고 할때 그리고 갑자기 흔들릴때 공포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¹²⁾ 幼兒期에는 騒音과 실제로 본 動物에 대하여 공포를 나타내며 兒童期에는 幼兒期의 恐怖는 상당히 줄고 身體傷害·위험·想像的인 生物에 대한 恐怖가 나타나며 실제로 본일이 없는 動物에 대한 恐怖가 特徵이다. 幼兒期에는 恐怖의 對象이 주로 直接的인 環境內의 事件에 局限되었던 것이 成長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過去를 回想하고 미래에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는 想象的인 對象과 空想的인 對象에 對해서 恐怖를 갖게 된다. 年齡이 증가할수록 全體的으로 個人的인 恐怖나 動物에 대한 恐怖는 줄어 들고 反面에 學校와 관련된 상적에 대한 걱정과 教師에 對한 恐怖등이 9세에서 12세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戰爭의 可能性·일자리·용돈·직업등 經濟的인 問題나 社會와 관련된 恐怖가 年齡이 증가할 수록 늘어간다고 한다.¹³⁾

② 心身의 狀態(Physical Condition)

兒童의 心身狀態가 恐怖情緒에 影響을 미친다. 疲勞하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情緒가 不安定할 때는 그 상태가 순조로울때 보다 더 심하게 恐怖反應을 나타내며 혼자 있을 때는 어머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경우 보다 더 빨리 恐怖反應을 나타내 보인다.¹⁴⁾ Cruickshank(1951)에 의하면¹⁵⁾ 身體的으로 결함이 있는 어린이가 異狀이 없

註 10) Miller, L.C. C.L. Barrett. E. Hampe and H. Noble
'Factor Structure of Childhood fea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1972. PP. 264-68.

11) Feshback, S. and N, Feshback : *Influence of the stimulus object on the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projection of fea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1963. PP. 498-502.

12) Jersild A.T and F.B. Holmes, Op. Cit., P. 18.

13) Jersild A.T. : *Child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0. PP. 96-104.

14) Hurlock E.B.: Op. Cit., P. 15

15) Cruickshank W M. and G.O. John : *Educ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9, PP. 119-124.

는 兒童보다 더 罪意識이나 恐怖感을 갖는다고 한다. 身體的 不具나 疾病등은 어린이의 방어력을 弱하게 하며 어린이가 疾病이나 身體的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때는 恐怖나 罪意識과 같은 묘한 情緒를 갖게 된다. 情緒的으로^{16) 17)} 不安定한 어린이는 安定되어 있는 어린이보다 더 쉽게 놀라는 傾向이 있으며, 外向性的 어린이가 內向性的 어린이 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模倣하므로 더 빨리 恐怖를 습득하며 反應을 나타낸다.

③ 性 (Sex)

性別에 따른 恐怖情緒의 差異를 보면 같은 年齡에서 女兒가 男兒보다 더 恐怖反應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社會的으로 恐怖에 대해서 여자가 더 잘 수용하며 특히 뱀이나 곤충류등에 대해서 女兒가 더 민감한 反應을 나타낸다.¹⁸⁾

④ 知能 (Intelligence)

知能이 높은 어린이가 보통 정도의 어린이보다 더 恐怖情緒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早熟한 어린이가 훨씬 더 위험의 可能性을 빨리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¹⁹⁾

⑤ 社會經濟的 階層 (S.E.S)

下流層의 어린이가 上流層이나 中流層의 어린이보다 더 恐怖反應을 나타낸다. 특히 下流階層의 어린이는 다른 階層의 어린이 보다 폭력에 대하여 恐怖反應을 나타낸다고 한다.²⁰⁾

⑥ 本보기의 影響 (Influence of example)

Hagman(1932),²¹⁾ John(1941),²²⁾ Lazar(1963)²³⁾의 研究에 依하면 父母의 恐怖情緒와 子女의 恐怖情緒는 서로 높은 相關性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의 걱정거리나 恐怖가 兒童의 恐怖情緒에 影響을 미친다고 한다.

Ⅲ . 研究方法 및 節次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²⁴⁾를 바탕으로 調查者가 作成한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총 28 문항으로 조사대상용 兒童用 6 문항과 조사대상 家族用 22 문항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兒童用 調查內容에는 年齡·地域·性別에 관한 조사

16) Hurlock E.B.: OP. Cit., P. 15.

17) Prichard, E. and R. Ojeman :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in security.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10. 1941. PP. 114-118.

18) Hurlock E.B.: OP. Cit., P. 15.

19) IBID, P. 15.

20) IBID, P. 15.

21) Hagman, R.R.; A Study of fears of children of preschool age, *Journal of Experimental* 1, 1932 pp. 110-130.

22) John, E.M.; A Study of the effects of educational air-raids on children of preschool ag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 1941 pp. 173-82.

23) Lazay, E.A.; Children's perceptions of other children's fears, unpublished Ph.D. disssac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63.pp. 27-29.

24) Jersild A.T. and F.B. Holmes, OP. Cit., p. 18.

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대상, 가장 무서운 공포장소와 무섭다고 생각되는 恐怖色의 3 가지 영역에 관해서 한가지 이상 답하도록 作成되었다.

조사대상 가족용 질문내용은 ① 조사대상 아동의 부모의 현재 공포대상 ② 조부모의 현재 공포대상 ③ 형제자매의 현재 공포대상 ④ 부모의 아동기 공포대상 ⑤ 일상생활이나 옛날 이야기 또는 그림책을 통해서 부모가 지적한 적이 있는 공포대상 등 5 個 영역에 관하여 한가지 이상 대답하도록 하였다. ⑥ 조사대상 가족의 일반적 성격으로는 부모의 직업, 수입, 교육정도, 주택의 형태, 문화시설 및 동거가족수 등을 조사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7~12세 사이의 국민학교 아동과 그의 가족이며 도시지역은 춘천시, 농촌지역은 춘성군과 원성군으로 한정하였으며 각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긴 국민학교 1 個校를 교육위원회로 부터 선정받아서 조사하였다.

자료의 응답은 아동과 그의 어머니가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아동의 표집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아동의 수 (N 802)

학 년	성 별	지 역 별	
		도 시	농 촌
1 학 년 (7 세)	남	31	19
	여	35	15
2 학 년 (8 세)	남	46	20
	여	41	20
3 학 년 (9 세)	남	45	29
	여	36	33
4 학 년 (10 세)	남	38	37
	여	45	18
5 학 년 (11 세)	남	41	12
	여	44	32
6 학 년 (12 세)	남	56	29
	여	51	29
합 계		509	293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사전검사(Pretest)와 본 조사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에서는 각학년별로 5~6명의 아동을 선정하여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하도록 하여 그 내용에 의해서 아동의 공포의 대상, 장소등의 범주를 정하였으며 질문문항은 사전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본 조사를 1985년 6월 22일~7월 5일까지, 8월 30일~9월 10일 사이에 조사대상 지역의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조사원이 미리 준비한 질문지에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고 가족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어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응답토록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치를 산출하고 내용분석을 χ^2 -test 를 하였다.

IV. 結果 및 解析

1) 조사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족의 일반적 성격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 가족의 일반적 성격

내 용	구 분	N (%)	내 용	구 분	N (%)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 졸	128 (15.96)	어머니의 직업	군 인	17 (2.12)
	고 졸	292 (36.41)		기 타	112 (13.97)
	중 졸	116 (20.27)		가정주부	454 (56.61)
	국 졸	204 (25.44)		상 업	35 (4.36)
	무 학	12 (1.50)		회 사 원	19 (2.37)
어머니의 교육수준	대 졸	22 (2.74)		교 직	41 (5.11)
	고 졸	136 (16.96)		농 업	200 (24.93)
	중 졸	339 (42.27)		기 타	53 (6.61)
	국 졸	245 (30.55)		10이하(만원)	149 (18.58)
	무 학	60 (7.48)		10~20 (")	179 (22.32)
아버지의 직업	상 업	193 (24.06)	1 가구 총수입 (1 개월)	20~40 (")	284 (35.41)
	회 사 원	94 (11.72)	40~60 (")	118 (14.71)	
	공 무 원	80 (9.98)	60~80 (")	37 (4.61)	
	교 직	34 (4.24)	80~100(")	19 (2.37)	
	농 업	272 (33.92)	100이상(")	3 (0.37)	
동거 가족수	3	32 (3.99)	문화 시설	피 아 노	68 (8.48)
	4	170 (21.20)		V T R	124 (15.46)
	5	213 (26.56)		냉 장 고	461 (57.48)
	6 ~ 10	366 (45.64)		자 가 용	65 (8.10)
	11 ~ 15	19 (2.37)		신 문	377 (47.0)
문화 시설	16 ~ 20	22 (0.25)	양 옥	114 (14.21)	
	라 디 오	557 (69.45)	가옥 형태	한 옥	442 (55.11)
	T V	614 (76.56)	아 파 트	144 (17.96)	
	전 축	216 (26.93)	기 타	102 (12.72)	

① 父母의 教育程度

조사대상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36.4%), 국졸(25.4%), 중졸(20.7%) 순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42.2%), 국졸(30.5%), 고졸(16.9%) 순으로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중졸의 학력정도가 가장 많았다.

② 父母의 職業

조사대상 부모의 主職種은 아버지는 농업 (33.9 %), 상업 (20.1 %) 순이며 어머니는 가정주부 (56.6 %) 와 농업 (24.9 %) 순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집단은 가정주부이면서 농사를 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調查對象家族의 1個月 收入程度

조사대상 가족의 1個月 총수입은 20 ~ 40 만원 (35.4 %), 10 ~ 20 만원 (22.3 %), 10 만원 이하 (18.6 %), 40 ~ 60 만원 (14.7 %) 순이다.

④ 同居家族數

가족의 형태는 가족수가 6 ~ 10 명인 가족이 45.6 % 로 가장 많고 5 명 이하인 가족이 47.8 % 로 나타나 조사대상 가족형태는 6 명 이상의 가족과 5 명 이하의 가족 두가지 가족형태로 구분된다.

⑤ 家族의 文化施設

조사대상 가족의 문화시설 정도는 T.V가 76.56 % 로 많은 대상자 가족이 T.V 를 소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69.4 % , 냉장고 57.5 % , 신문이 47.0 % 로 반수 이상의 가족이 T.V, 라디오, 냉장고, 신문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家屋의 形能

대상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형태는 한옥이 55.1 % 로 가장 많고 아파트 17.9 % , 양옥 14.2 % 순이다.

2) 地域別·年齡別·性別에 따른 兒童恐怖 (연구문제 I)

本 研究에서는 7 ~ 12 세 아동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對象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공포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아동들은 그들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되는 恐怖對象과 恐怖 그리고 場所·恐怖感을 주는 色에 관해서 1 가지 이상 自由롭게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 가지로 한정하여 그 內容을 공포의 대상과 場所에서는 12個 영역으로 비슷한 범주별로 分類하고 恐怖感을 주는 色에 있어서는 4個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地域別로 본 兒童의 恐怖對象·恐怖場所·恐怖色은 <표 3> 과 같다.

<표 3> 지역별로 본 아동의 공포대상·공포정서·공포색

공 포 대 상	도	시	농	촌
귀신·도깨비·유령	227	(37.0)	78	(23.9)
질병·상처·고통·수술	20	(3.3)		
어둠·밤	33	(5.4)	5	(1.5)
높은 곳·옥상	12	(2.0)	7	(2.1)
동물 (사자·호랑이·뱀·곤충)	203	(33.1)	178	(54.6)
물·불·홍수	33	(5.4)	25	(7.7)
도둑·강도·유괴범·무장간첩	47	(7.7)	18	(5.5)

벌·회초리·매맞는 것	15	(2.4)	4	(1.2)
부모·교사	12	(2.0)	4	(1.2)
소음·큰소리 (천둥·번개)	1	(0.2)		
교통사고	1	(0.2)		
기 타	10	(1.6)	7	(2.1)
	$\chi^2 = 60.7$ df = 11			
공 포 장 소	도 시		농 촌	
공동묘지·지옥·천당	118	(28.2)	60	(25.2)
병원·치과	23	(5.5)	6	(2.5)
어두운 길·밤길·동굴·지하실	78	(18.6)	31	(13.0)
화장실	57	(13.6)	37	(15.5)
산·숲·나무	18	(4.3)	6	(2.5)
강·바다·우주	110	(26.3)	94	(39.5)
북괴·북한	6	(1.4)		
집	2	(0.5)		
전쟁·골목길			2	(0.8)
거리·큰길	2	(0.5)	1	(0.4)
기 타	5	(1.2)	1	(1.4)
	$\chi^2 = 25.72$ df = 10			

공 포 색	도 시		농 촌	
빨강 (붉은 색)	648	(60.8)	495	(67.6)
까망 (검정색)	330	(31.0)	171	(23.4)
파랑 (초록·하늘색)	45	(4.2)	15	(2.0)
기 타	427	(3.9)	51	(7.0)
	$\chi^2 = 25.99$ df = 11			

<표 3>에 의하면 도시지역 대상아동에게는 ① 귀신, 도깨비, 유령 (37.0%)과 ② 동물 (사자, 호랑이, 뱀, 곤충) (33.1%)이 가장 무서운 공포대상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아동의 공포대상은 ① 동물 (사자, 호랑이, 뱀, 곤충) (54.6%)과 ② 귀신, 도깨비, 유령 (23.9%) 등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有意한 差異는 아니다. 지역간의 차이없이 조사대상 7~12세의 국민학교 아동은 ① 귀신, 도깨비, 유령등 상상적인 것과 ② 동물 (사자, 호랑이, 뱀, 곤충)이 가장 무서운 공포대상으로 나타났다. 공포대상에 있어서 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은 T.V. 등 媒體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兒童의 응답내용을 보면 도시·농촌의 아동 모두 동일하게 공

포대상에서 지적한 “귀신은” “T.V. 프로그램” 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아동에게 공포감을 주는 장소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별로 본 조사대상 아동의 공포장소는 도시아동은 ① 지옥, 천당과 같은 상상적인 장소와 우주, 外界등에 대해서 무서운 장소로 지적하였다. 반면 농촌아동은 ① 강, 바다, 우주, 외계등 자연적인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② 공동묘지, 지옥과 천당을 무서운 장소로 지적하였고 도시 아동보다 농촌아동이 화장실을 공포장소로서 지적하였으나 統計的으로 有意한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른 조사대상 아동의 恐怖色에 대한 조사결과는 도시 농촌간의 지역별 차이없이 붉은색을 가장 무서운 색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은 검정색 순으로 나타났다.

年齡別로 본 兒童의 恐怖對象·恐怖場所·恐怖色은 <표 4>와 같다.

연령별로 본 조사대상 아동의 공포대상은 7~10세의 저학년 아동은 “동물”(사자, 호랑이, 뱀, 곤충)에 대해서 11~12세의 고학년 아동은 “①귀신, 도깨비, 유령”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은 저학년 아동은 “동물”과 같은 실제적인 대상에 대해서, 연령이 많은 고학년은 “귀신, 도깨비, 유령”같은 상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나 Jersild (1960)²²⁾의 연령별로 본 아동의 공포대상에 관한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표 4> 연령별로 본 아동의 공포대상·공포장소·공포색

공 포 대 상	1 학년 (7세)		2 학년 (8세)		3 학년 (9세)		4 학년 (10세)		5 학년 (11세)		6 학년 (12세)	
	귀신·도깨비·유령	27	(27.0)	42	(30.9)	48	(36.1)	57	(38.5)	62	(25.3)	69
질병·상처·교통·수술·질병	0	(0)	2	(1.5)	1	(0.8)	1	(0.7)	11	(4.5)	5	(2.8)
어둠·밤	0	(0)	1	(0.7)	3	(2.3)	1	(0.7)	29	(11.8)	4	(2.2)
높은곳·옥상	0	(0)	0	(0)	0	(0)	0	(0)	19	(7.8)	0	(0)
동물(사자·호랑이·뱀·곤충)	68	(68.0)	80	(58.8)	63	(47.4)	67	(45.3)	50	(20.4)	53	(29.8)
불·물·홍수	2	(2.0)	1	(0.7)	6	(4.5)	1	(10.7)	43	(17.6)	5	(2.8)
도둑·강도·유괴범·무장간첩	1	(1.0)	5	(3.7)	9	(6.8)	15	(10.1)	21	(8.6)	14	(7.9)
벌·회초리·매맞는것	2	(2.0)	0	(0)	1	(0.8)	4	(2.7)	4	(1.6)	8	(4.5)
부모·교사	0	(0)	3	(2.2)	2	(1.5)	1	(0.7)	3	(1.2)	7	(3.9)
소음·큰소리(천둥·번개)	0	(0)	0	(0)	0	(0)	0	(0)	0	(0)	1	(0.6)
교통사고	0	(0)	0	(0)	0	(0)	1	(0.7)	0	(0)	0	(0)
기 타			2	(1.5)					3	(1.2)	12	(6.7)

$\chi^2 = 21.78 \quad df = 20$

註22) Jersild A.T., OP. Cit., P. 22

공포장소	1학년 (7세)		2학년 (8세)		3학년 (9세)		4학년 (10세)		5학년 (11세)		6학년 (12세)	
공동묘지·지옥·천당	20	(20.8)	20	(16.9)	23	(18.3)	38	(28.1)	70	(63.7)	70	(40.9)
병원·치과	3	(3.1)	1	(2.8)	5	(4.0)	14	(10.4)	0	(0)	6	(3.5)
어두운길·밤길·동굴·지하실	8	(8.3)	15	(2.7)	17	(13.5)	26	(19.3)	2	(18.2)	41	(24.0)
화장실	6	(6.3)	31	(20.3)	13	(10.5)	13	(9.6)	1	(9.2)	30	(17.5)
산·숲·나무	10	(10.4)	6	(5.1)	3	(2.4)	2	(1.5)	0	(0)	3	(1.8)
강·바다·우주	48	(50.0)	44	(37.3)	59	(46.8)	41	(30.4)	1	(9.1)	11	(6.4)
북괴·북한	0	(0)	0	(0)	4	(3.2)	1	(0.7)	0	(0)	1	(0.6)
집	0	(0)	0	(0)	0	(0)	0	(0)	0	(0)	2	(1.2)
전쟁·골목길	0	(0)	0	(0)	0	(0)	0	(0)	0	(0)	2	(1.2)
거리·큰길	0	(0)	1	(0.8)	1	(0.8)	0	(0)	0	(0)	1	(0.6)
기타	1	(1.0)			1	(0.8)					4	(2.3)

$$\chi^2 = 179.31 \quad df = 50$$

공포색	1학년 (7세)		2학년 (8세)		3학년 (9세)		4학년 (10세)		5학년 (11세)		6학년 (12세)	
빨강(붉은색)	138	(52.3)	204	(61.3)	225	(58.6)	225	(75.9)	178	(77.7)	321	(66.9)
까망(검정색)	117	(44.3)	102	(30.6)	138	(35.9)	54	(16.1)	25	(10.9)	90	(18.8)
파랑(초록, 하늘색)	6	(2.3)	9	(2.7)	3	(0.8)	9	(2.7)	18	(7.8)	33	(6.9)
기타	3	(1.1)	18	(5.4)	18	(4.7)	18	(5.4)	4	(1.74)	36	(7.5)

$$\chi^2 = 123.3 \quad df = 12$$

공포장소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7~10세의 저학년 아동은 ① 강, 바다, 우주 등 自然的인 場所에 대해서 11~12세의 고학년 아동은 ② 지옥, 천당, 공동묘지 등 보다 상상적인 場所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有意한 것은 아니었다.

연령별로 본 아동의 공포색은 <표 4>와 같다. 저학년 고학년의 연령별 차이없이 붉은색을 가장 무서운 색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은 검정색 순으로 나타났다.

性別로 본 兒童의 恐怖對象·恐怖場所·恐怖色은 <표 5>와 같다.

〈표 5〉 성별로 본 아동의 공포대상·공포장소·공포색

공포대상	남		여	
	인원	(%)	인원	(%)
귀신·도깨비·유령	157	(34.7)	148	(30.4)
질병·상처·고통·수술·질병	6	(1.3)	14	(2.9)
어둠·밤	10	(4.2)	19	(3.0)
높은곳·옥상	5	(1.1)	14	(2.0)
동물(사자·호랑이·뱀·곤충)	176	(38.9)	205	(42.1)
물·불·홍수	28	(6.2)	30	(6.2)
도둑·강도·유괴범·무장간첩	33	(7.3)	32	(6.6)
벌·회초리·매맞는것	11	(2.4)	8	(1.6)
부모·교사	5	(1.1)	11	(2.2)
소음·큰소리(천둥·번개)	1	(0.2)	0	(0)
교통사고	1	(0.2)	0	(0)
기타	11	(2.4)	6	(1.2)

$\chi^2 = 15.00$ $df = 11$ $P < .05$

공포장소	남		여	
	인원	(%)	인원	(%)
공동묘지·지옥·천당	101	(30.1)	77	(24.0)
병원·치과	13	(3.9)	16	(5.0)
어두운길·밤길·동굴·지하실	54	(16.1)	55	(17.1)
화장실	45	(13.4)	49	(15.3)
산·숲·나무	11	(3.3)	13	(4.0)
강·바다·우주	101	(30.1)	103	(32.1)
북괴·북한	4	(1.2)	2	(0.6)
집	0	(0)	2	(0.6)
전쟁·골목길	2	(0.6)	0	(0)
거리·큰길	1	(0.3)	2	(0.6)
기타	4	(1.2)	2	(0.6)

$\chi^2 = 9.24$ $df = 10$ $P < .05$

공포색	남		여	
	인원	(%)	인원	(%)
빨강(붉은색)	579	(63.3)	364	(63.9)
까망(검정색)	261	(28.5)	240	(27.2)
파랑(초록·하늘색)	30	(3.3)	30	(3.4)
기타	45	(4.9)	48	(5.4)

$\chi^2 = 56$ $df = 3$

性別로 본 아동의 공포대상은 男女 兒童 모두 “동물(사자, 호랑이, 뱀, 곤충)” 과 “귀신, 도깨비, 유령”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女子兒童은 男子兒童보다 “동물”과 같은 실제적인 대상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공포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성별에 따른 공포장소의 차이를 보면 男子兒童은 ① 강, 바다, 우주등 자연적인 장소와 ② 지옥·천당·공동묘지등 상상적인 장소에 대해서 同一하게 공포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아동은 상상적인 장소로서의 지옥·천당·공동묘지 보다는 강, 바다, 우주등 자연적인 장소에 대해서 더 공포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아동에게 공포감을 주는 색은 男女의 性別에 관계없이 붉은색을 가장 무서운 색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은 검정색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연령별·성별에 관계없이 同一한 색에 대해서 조사대상 아동의 반수 이상이 공포감을 갖는 것은 붉은색은 피와 관련이 있으며, 검정색은 밤이나 어둠과 관련되어서 공포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家族의 恐怖對象과 兒童의 恐怖對象과의 관계 (연구문제 II)

가족의 공포대상이 아동의 공포대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 가족 구성원중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현재 공포 대상을 조사하였다. 조부모와 형제자매의 공포대상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표 6> 조사대상 가족원의 공포대상 (%)

공포대상 가족원	귀신	질병	어둠	높은	동물	불	도둑	벌	부모	큰소리	교통	기타
	도깨비	고통	밤	곳	곤충	홍수	강도 유괴범	매 말 낫	교사	소음	사고	
아버지의 현재 공포	55(9)	47(8)	22(4)	1(0)	147(24)	72(12)	184(30)	7(1)	46(7)	2(0)	24(4)	15(2)
어머니의 현재 공포	74(10)	50(7)	30(4)	3(0)	209(29)	58(8)	199(28)	7(1)	49(7)	3(0)	21(3)	17(2)
형제·자매의 현재공포	183(34)	6(1)	12(2)	9(2)	147(27)	15(3)	105(19)	15(3)	27(5)	3(1)	12(2)	9(2)
조부의 현재 공포	18(9)	9(5)	0(0)	0(0)	45(23)	21(11)	78(39)	0(0)	12(6)	0(0)	12(6)	3(2)
조모의 현재 공포	72(19)	21(6)	0(0)	3(1)	120(32)	18(5)	90(24)	0(0)	24(6)	0(0)	15(4)	9(2)

<표 6>에 의한 조사 대상 가족의 공포대상을 보면 아버지의 현재 공포 대상은 ①도둑, 강도, 유괴범(30%) 등 사회적인 대상과 ② 동물(뱀, 곤충)(24%) ③ 물, 불, 홍수(12%) 등 자연적인 대상 순이며 어머니의 현재 공포 대상은 ① 동물(뱀, 곤충)(29%) ② 사회적인 대상으로 도둑, 강도, 유괴범(28%) ③ 귀신, 도깨비(10%) 등 상상적인 대상 순으로 나타났다.

형제 자매의 현재 공포는 ① 상상적인 대상으로 귀신, 도깨비(34%) ② 동물(뱀

곤충) (27%) ③ 도둑, 강도, 유괴범 (19%) 등 사회적인 대상 순으로 지적되었다. 조부의 현재 공포 대상은 ① 사회적인 대상—도둑, 강도, 유괴범등 (39%) ② 동물 (뱀, 곤충) (23%) ③ 자연적인 대상—불, 물, 홍수등 (11%) 순으로 나타났고 조모의 현재 공포 대상은 ① 동물 (뱀, 곤충) (32%) ② 사회적인 대상—도둑, 강도, 유괴범 (24%) ③ 상상적인 대상—귀신, 도깨비 (19%)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밝혀진 것은 공포대상에 대한 性別 차이로서 조모, 어머니, 女兒의 현재 공포 대상은 同一한 대상으로 시대별 차이없이 모두 동물에 대해서 同一하게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urlock (1981)²³⁾의 연구결과 즉 “뱀이나 곤충류에 대해서 女兒가 더 높은 恐怖反應을 나타낸다”와 동일한 結果로 나타났다.

家族의 공포대상과 兒童의 공포대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 공포대상은 빈도가 높은 3가지 대상으로 한정하며 아동의 공포대상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① 부모의 현재 공포대상과 아동의 공포대상과의 관계

부모의 현재 공포대상이 아동의 공포대상에게 영향을 주는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부모의 현재 공포대상과 아동의 공포대상과의 관계

부모의 현재 공포대상		아동의 공포대상	귀신 도깨비 유령	질병	어둠	높은 곳	동물	불, 물	도둑 강도	벌	부모	교통 사고	
아버지	도둑·강도	46 (46.1)	2 (1.8)	1 (0.9)	1 (0.9)	43 (38.4)	5 (4.5)	7 (6.3)	2 (1.8)	3 (2.7)	2 (1.8)	$\bar{x}' = 22.23$ $df = 1.9 P < .05 < .05$	
	유괴범	33 (32.5)	1 (2.5)	1 (2.5)	2 (5.0)	46 (40.0)	3 (7.5)	2 (5.0)	1 (2.5)	0 (0)	1 (2.5)		
	불·물	22 (23.7)	0 (0)	0 (0)	1 (1.1)	51 (54.8)	9 (9.7)	5 (5.4)	0 (0)	1 (1.1)	4 (4.3)		
	동물·뱀 곤충	30 (24.0)	0 (0)	5 (4.0)	1 (0.8)	69 (55.2)	9 (7.2)	5 (4.0)	2 (1.6)	2 (1.6)	2 (1.6)		
어머니	동물·뱀 곤충	51 (39.2)	2 (1.5)	5 (3.8)	1 (0.8)	49 (37.7)	6 (4.2)	10 (7.7)	2 (1.5)	0 (0)	4 (3.1)	$\bar{x}' = 24.67$ $df = 18.9 P < .05 < .05$	
	도둑·강도	17 (43.6)	0 (0)	2 (5.1)	2 (5.1)	13 (33.3)	1 (2.6)	4 (10.3)	2 (5.1)	0 (0)	0 (0)		
	귀신 도깨비												

<표 7>에 의하면 父母의 현재 공포대상은 아동의 현재 공포대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즉 아동의 공포대상중 어떤 공포는 부모의 공포대상과 同一한 대상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현재 공포대상과 관계가 있는 兒童의 공포대상은 “동물”이며 같은 결과로서 어머니의 현재 공포대상인 “귀신” “동물”은 兒童에게

註23) Hurlock E.B., OP. Cit., P. 15

있어서도 同一한 공포대상으로 습득됨을 알 수 있다.

② 조부모의 현재 공포대상과 아동의 공포대상과의 관계

조부모의 현재 공포대상이 아동의 공포대상과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조부모의 현재 공포대상과 아동의 공포대상과의 관계

조부모의 현재 공포대상	귀신 유령	질병	어둠	높은곳	동물	불	도둑	벌	부모	큰소리	기타	
조도둑	7 (24.1)	0 (0)	1 (3.4)	0 (0)	15 (51.7)	1 (3.4)	2 (6.9)	1 (3.4)	1 (3.4)	0 (0)	1 (3.4)	$\chi^2 = 11.03$ $df = 169 < .05$
불, 물	1 (14.3)	0 (0)	0 (0)	0 (0)	3 (42.9)	2 (28.6)	1 (14.3)	0 (0)	0 (0)	0 (0)	0 (0)	
동물 부뱀, 곤충	6 (27.3)	0 (0)	1 (4.5)	1 (4.5)	10 (45.5)	3 (13.6)	0 (0)	0 (0)	0 (0)	0 (0)	1 (4.5)	
동물 조뱀, 곤충	14 (30.4)	1 (6.5)	0 (0)	0 (0)	19 (41.3)	2 (4.3)	5 (10.9)	0 (0)	1 (2.2)	0 (0)	2 (4.3)	$\chi^2 = 21.42$ $df = 2.0 < .05$
도둑	8 (24.2)	1 (3.0)	5 (15.2)	1 (3.0)	10 (30.3)	1 (3.0)	4 (12.1)	0 (0)	1 (3.0)	1 (3.0)	1 (3.0)	
귀신 모도깨비	10 (37.2)	0 (0)	1 (3.7)	0 (0)	12 (44.4)	1 (3.7)	2 (7.4)	1 (3.7)	0 (0)	0 (0)	0 (0)	

<표 8>에 의하면 조부모의 현재 공포대상은 아동의 현재 공포대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조부의 공포대상인 “동물” 조모의 공포대상인 “동물” “귀신”은 손자 손녀인 아동에게 있어서도 同一한 공포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 동거가족의 아동은 옛날 이야기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조부모의 공포대상이 아동에게 학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형제 자매의 현재 공포대상과 아동의 공포대상과의 관계

조사대상 아동과 형제 자매간의 현재 공포대상은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형제 자매의 공포 대상과 아동의 공포대상의 관계 (%)

형제 자매의 공포대상	귀신 유령	질병	어둠	높은 곳	동물	불	도둑	벌	부모	큰 소리	기타	
귀신	28 (36.8)	3 (3.9)	3 (3.9)	1 (1.3)	31 (40.8)	2 (2.6)	6 (7.9)	2 (2.6)				$\chi^2=30.54$ $df=20 P<.05$
동물 뱀, 곤충	15 (26.8)		1 (1.8)	1 (1.8)	29 (51.8)	6 (12.7)	1 (1.8)		1 (1.8)		2 (3.6)	
도둑	15 (30.0)	3 (6.0)	5 (10.0)		16 (32.0)	1 (2.0)	6 (12.0)		1 (2.0)	1 (2.0)	2 (4.0)	

〈표 9〉에 의하면 형제 자매의 현재 공포대상과 대상 아동의 공포대상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대상아동의 형이나 누나의 현재 공포대상인 “동물”은 그 동생인 대상아동의 공포대상과 같은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정서 외에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공포정서”²⁴⁾는 家族의 恐怖情緒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에서 나타난 결과는 형이나 누나의 공포 정서가 동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조부모 또는 부모의 공포정서 중 일부가 同-하계 兒童에게 습득된 것으로 해석된다.

④ 부모가 지적한 공포대상과 兒童의 공포대상의 관계 (연구문제 III)

부모가 동화책이나 옛날이야기 또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에게 “무섭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 대상과 아동의 현재 공포대상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1〉 〈표 10-2〉와 같다.

〈표 10-1〉 부모의 아동에게 지적한 공포의 대상

귀신 유령	질병	어둠	높은 곳	동물	불	도둑	벌	부모	큰 소리	교통 사고	기타
416(55)	0(0)	9(1)	1(0)	248(33)	13(2)	49(6)	1(0)	6(1)	4(1)	8(1)	4(1)

註 24) Waston, JB. and R. Rayner, OP. Cit., P. 16

〈표 10-2〉 부모가 지적한 공포대상과 아동의 현재 공포대상과의 관계 (%)

아동의 공포대상의 부모의 공포대상	귀신 유령	질병	어둠	높은곳	동물	불	도둑	벌	부모	큰소리	교통 사고	기타	
귀신, 유령	108 (38.8)	2 (0.7)	7 (2.5)	2 (10.7)	118 (42.4)	13 (4.7)	13 (4.7)	5 (1.8)	5 (1.8)	1 (0.4)		4 (1.4)	$\chi^2=21.78$
동물 뱀, 곤충	31 (25.6)	4 (3.3)	5 (4.1)	3 (2.5)	54 (44.6)	7 (5.8)	12 (9.9)	2 (1.7)	2 (1.7)	0 (0)		1 (0.8)	df=20 P<.05

〈표 10-1〉은 부모가 동화책이나 옛날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에게 “무섭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 공포의 대상으로서 “귀신” “유령”이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동물(사자, 호랑이, 뱀, 곤충)”로 33% 순이다.

〈표 10-2〉에 의하면 부모가 지적한 적이 있는 공포대상은 아동의 현재 공포대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부모가 지적한 공포대상으로 “귀신”과 “동물”은 아동의 현재 공포대상으로 同一하게 나타났다. 즉 兒童의 恐怖는 부모의 恐怖에 의해서 조건화되거나 습득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urlock²⁵⁾의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는 공포”에 대한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4) 家族背景과 아동의 恐怖對象과의 관계(연구문제Ⅳ)

가족배경적 요인이 아동의 공포대상에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가족배경 요인중 부모의 교육수준 수입정도와 문화시설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아동은 同一하게 “귀신”과 “동물”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교육정도의 높고 낮음이나 수입정도와 문화시설의 적고 많음에 따라 아동의 공포대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家屋形態에 따라서 아동의 공포대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귀신”(41.3%)과 동물(25%)에 대해서, 양옥이나 한옥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동물”(40.0%, 47.3%)과 귀신(31.6%, 28.4%)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면 조사대상 가족의 70% 이상이 T.V.를 소유하고 있음을 조사한 바 아동의 공포는 家族背景의 各要因과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媒體의 영향에 의해서 同一하게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註 25) Hurlock E.B., op. cit., p.15

〈표 11〉 家族背景과 兒童의 恐怖對象과의 關係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研究問題Ⅳ〉에서 가옥의 형태에 따라서 兒童의 恐怖對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과제에 대한 結果에서는 가옥구조의 차이 보다는 家族이 所有하고 있는 媒體가 아동의 恐怖形成에 더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結 論

본 연구는 춘천시와 춘성군, 원성군을 중심으로 한 802명 아동의 恐怖對象에 관한 調查研究로서 兒童의 恐怖對象에 대한 지역별·연령별·성별 차이점을 분석하고 家族構成員中 祖父母·父母·형제·자매의 공포대상과 대상아동의 공포대상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부모가 지적한 적이 있는 恐怖對象이 兒童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考察하고 가족배경적 요인에 따른 아동의 恐怖對象의 차이점을 分析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研究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어낼 수 있었다.

1. 아동의 공포대상은 지역별·연령별 차이없이 “귀신”과 “동물”이며 성별에는 차이가 있어서 男兒는 女兒보다 “귀신”에 대해서 女兒는 男兒보다 “동물”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공포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공포장소에서도 지역별·연령별·성별의 차이없이 공포대상과 관련이 있는 상상적인 場所(지옥, 천당)와 自然的인 場所(강, 바다, 우주등)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다.
3. 공포감을 주는 색은 지역별·연령별·성별에 차이없이 붉은색과 검정이다.
4. 아동의 공포대상은 父母·祖父母의 공포대상중 일부대상과 동일하다.
5. 조사대상 아동과 그 형제 자매간의 恐怖對象은 同一한 대상으로 나타났다.
6. 부모가 지적한 恐怖對象과 兒童의 공포대상은 同一하다.

본 연구와 관련된 다음의 연구를 위해서 몇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대상지역에 대한 확대조사가 필요하다.
 - 2) 연령별로 본 아동의 공포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아동의 공포정서에 영향을 주는 다각적인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4) 공포정서중 지속되는 공포에 대한 원인과 종류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5) 공포정서가 兒童의 정신발달에 미치는 影響정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위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계속적인 研究는 稿를 달리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John B. Watson, "Watson on Fear (1919)" in Wayne Dennis, (ed.), Historical Reading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Appleton Century Crafts, 1972 를 인용한 朱貞一; 兒童發達學. 敎文社. 1985. P. 238
2. Gesell. A; Child Development, Harper & Brothes Publishes, 1965, p.303.
3. L. Gidseg; The American babybook, Book Inc., 1955, p.483.
4. Hebb, D.O.; On the motive of fear, Psychological Review 53, 1941, pp. 259-276.
5. Valentine; The innate bases of fea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37, 1930, pp. 394-420.
6. E.B. Hurlock; Child Development, Mc. Grow-Hill international book Co., 1981, pp. 197-201.
7. Waston, J.B. and R. Rayner; Conditioned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 1920, pp. 1-14.
8. Jersild, A.T., and F.B. Holmes, Children's fears,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No.20,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5, pp. 319-330.
9. Miller, L.C.; School behavior check list, An inventory of deviant behavior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1972, pp.134-144.
10. Feshback, S, and N. Feshback; Influence of the stimulus object on the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projection of fea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1963, pp. 498-502.
11. A.T. Jersild; Child psychology, Engelwood Cliffs, N.J. Perentice-Hall, 1960, pp. 96-104.
12. Cruick Shank, W.M. and G.O. Johnson; Educ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Engel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7, pp. 119-24.
13. Prichard, E and R. Ojeman; An approach to the to the measurement of insecurity, Jourity,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al Education, 10, 1941, pp. 114-118.
14. Hagman, R.R.; A study of fears of children of preschool age, Journal of Experimental 1, 1932, pp. 110-130.

15. John, E.M.; A study of the effects of educational air-raids on children of preschool ag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 1941, pp. 173-182.
16. Lazay, E.A.; Children's perceptions of other children's fear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63, pp. 27-29.
17. Jersild; Children's fears, dreams, wishes, daydreams, likes, dislikes, pleasant, and unpleasant,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3, Winker 1949